

숙인 우주황씨 묘갈
淑人紆州黃氏墓碣

嗚呼라 우리 先祖妣는 紆州黃氏니 仁慈한 懿行이 足히 後世에 傳할 만하고 千載를 口傳하여 영원히 전하여 나갈듯 싶지만 表石에는 그 증거할 만한 陰記가 없으니 어찌 後孫의 유감이 아니라! 이제 비를 고쳐 세우려고 그 대략을 쓴다. 先祖妣의 考諱는 守正이니 慶尙兵馬節度使요 祖는 陸이니 縣監이었고 曾祖의 諱는 居中이니 戶曹判書였고 諡는 文肅이요 外祖는 權照니 本貫은 安東이다. 先祖妣께서는 名門에서 태어나 우리 先祖考 經歷 金公 諱 克羞에게 시집오니 곧 左議政 光山府院君 諱 國光의 第三子였고 祖의 諱는 鐵山이니 司憲府監察이요 曾祖의 諱는 問이니 文科에 급제하여 檢閱이었고 高祖의 諱는 若采니 大司憲이다. 先祖考께서 天命이 엮어 中年에 卒하니 先祖妣께서 일찍이 하늘같이 여기던 夫君을 여의고 執喪함에 禮에 넘쳤고 三子를 敎養하여 門戶를 세웠으니 오늘날의 家聲(그 집안의 명성 또는 명성)은 우리 先祖妣께서 보살피 주신 은혜로다. 天年(수명)으로 卒하여 恩津石西里 佳莊洞坤坐原에 安葬하니 先祖考墓와 두어 등 사이가 된다. 男長은 貴胤이요 仲은 贊胤이요 季는 忠胤이니 다 副護軍 勳籍에 올랐었고 三派가 지금은 각각 十四五世에 번성하여 기록할 수가 없다.

先祖妣의 성음과 閨範을 세대가 멀으므로 追輯하여 기록할 수 없으니 참으로 애석하다.

癸亥(西紀一九二三年)四月 日에

十三代孫 嘉善大夫 前行漢城裁判所 判事 喆鉉이 삼가 짓고

十五代孫

珍洙가 삼가 쓰고

壬戌(西紀一九八二年)仲秋改碑時에 十六대손 容萬이 삼가 다시 썼다.

十五代孫 煇洙와 十六代孫 容順이 같이 獻誠하여 改豎하였다.

同時에 瑩域을 重修하고 床石과 碑石을 改設하고 碑文은 後孫 齊議로 舊碑文을 仍用 하되 國漢文으로 改鑄하였다.

淑人紆州黃氏墓碣 (原文)

嗚呼我 先祖妣紆州黃氏深仁懿行足以裕後口碑千載固有不朽者存然表墓之石曾無可徵之陰刻豈非後孫之遺憾哉今當改立以記其略 先祖妣考諱守正慶尚兵馬節度使祖陸縣監曾祖諱居中戶曹判書諡文肅外祖權照本安東 先祖妣生於名門歸于我 先祖考經歷金公諱克羞即左議政光山府院君諱國光第三子祖鐵山司憲府監察曾祖諱問文科檢閱高祖若采大司憲 先祖考不幸中年而卒 先祖妣早喪所天執制踰禮教養三孤成門立戶迄今之家聲寔由我 先祖妣遺簪也以天年終葬于恩津石西里佳莊洞負坤之原距先祖考墓間 數岡矣男長貴胤仲贊胤季忠胤並副護軍勲籍也三派今各十四五世蕃衍不可悉錄先祖妣性度閨範世邈而亦不可追輯殫記嗟呼惜哉

癸亥四月 日

十三代孫嘉善大夫前行漢城裁判所 判事 喆鉉 謹撰

十五代孫 珍洙 謹書